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말씀 : 요한일서 5:1-21

요절 : 요한일서 5:4b,5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은 1-4장까지에서 사랑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사랑의 근원(根源)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배우고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김(1-5)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1)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크게 기뻐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칭찬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마16:16,17) 이는 하나님이 뜻을 두셨기 때문에 그가 믿을 수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b)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결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1:13)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태어나게 못합니다. 거듭난 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자들입니다. 과거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과 혈기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형제)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며 정욕적인 사랑일 뿐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

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바 되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3)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일용할 양식을 기쁨으로 신실하게 먹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일에 너무 분주해서 말씀 공부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식어가고 냉랭해져 갑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와야 하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생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멀리하면 형제 사랑도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랑하기는커녕 형제 눈의 작은 티만 봐도 정죄하고 판단하며 미움과 분노와 반발심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깊이 묵상할 때 내 마음에 형제에 대한 정죄와 판단의 영이 사라지고 형제에 대한 긍휼과 따뜻한 사랑이 싹터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 사랑은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면 무겁게 느껴지지만 사랑할 때는 어떤 일도 힘들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라 하면 결코 하지 않을 일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합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 무려 칠 년 동안이나 고달픈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창29:20)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대개 그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마음에 세상적인 욕심이 생겼거나 육신의 정욕을 즐기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계명이 부담스럽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나를 병들게 하고 행복을 주기보다는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순종하는 삶이 큰 은혜요 큰 기쁨임을 깨닫게 됩니다.

4,5절은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닌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4,5)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세상에 대한 승리는 그 근원(根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4)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상태로는 결코 세상을 승리할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물질적이고 이기적이며 탐욕적이고 정욕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약육강식과 생존투쟁이 지배하는 냉엄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기적이 되고 탐욕적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5)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소유와 타이틀에 둡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권세를 소유하여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고시에 합격하여 판검사가 되거나 고급 공무원이 되면 출세했다고 합니다. 또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안정되고 보수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아 계속해서 진급을 하면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사이는 무엇을 하든지 전문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배의 심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은 상대적이고 한계적이어서 참된 성공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한계 때문에 말년에는 허무를 느끼며 비참한 패배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자(權勢者)나 피지배자나 고귀한 자나 천한 자나 아름다운 미인이나 추한 자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렐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전2:15,16)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죄와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실패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아무리 과정 과정을 승리한다 할지라도 인생 자체를 실패한다면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인생의 과정 과정은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인생을 승리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승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승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 볼 때 세상을 정복한 영웅들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勝利)하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나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승승장구(乘勝長驅) 승리하였지만 심복인 부루터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막 트웨인(Mark Twain)은 부와 명예와 절세의 미인인 아내와 딸들을

두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당시 청소년들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막 트웨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만일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라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한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인생, 진정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쳐서 떨어질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운전 시험에 떨어지자 견디지 못하여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험에 떨어져도 비참한데 인생 자체를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패배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와 죽음 권세에 패하여 근본적으로 패배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죄와 죽음의 사슬은 나를 더욱 옥아매어 나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4)고 탄식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 주심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별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승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8:37).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진정으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II.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6-12)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6)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세 가지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첫째, 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복음역사)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3:17)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물세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역사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피입니다.

피로 증언하신 것은 이사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메시아로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피를 믿는 모든 이들을 죄에서 구원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주관하던 죄와 죽음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는 이미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결정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지만 다시 성령의 모습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신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진리를 깨우쳐주시고 진리로 인도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의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는 셋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그 셋은 하나입니다. 본질적인 존재로써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결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가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9,10)

9절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0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소유한 영생입니다. 이것은 증거이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11,12)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은 앞의 세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서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허무주의, 우울증에 시달리며 지옥을 맞보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이는 행복이

나 불행이나 더 나아가 영생이나 영벌이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13)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집을 팔려고 이삿짐 정리를 하다가 창고에서 먼지가 쌓여 묻은 한 그림을 내다 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의 유작(遺作)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선물로 받은 것인데 돌아가시자 그것의 출처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명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처럼 한계적이고 불안정하고 연약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세상에서 성공의 대명사라 불리는 스티브 잡스 (Steve Jobs)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유언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의 최정상에 도달했고 다른 사람들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일 외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없었고 부(wealth)는 나에게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본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영광과 막대한 부는 죽음 앞에서 빛을 잃었고 의미도 상실했다. 어둠속에서 나는 생명연장 장치의 녹색 빛과 웅덩이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인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기억들뿐이다.” 스티브잡스는 어릴 때 잠깐 교회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攝理)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을 잃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의 확신이 있었다면 꺼져가는 육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나 행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결국 무너질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말합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야 확인할 수 있고 정말 영원히 살아봐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까? 설사 죽은 후 영생이 있다 해도 지금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패배자(loser)의 인생의 시간이 더 늘어난다면 그만큼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영생은 현재 생명의 연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말라죽어가다가 다시 포도나무에 붙여져 뿌리로부터 생명을 덧입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신자는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중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영생)을 소유한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함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위해 목숨 걸지 않고 긴 시야로 더 중요한 것을 위해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허무한 물질이나 쾌락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장래를 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또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요한은 유배지에서 육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영생의 믿음과 기쁨으로 믿음을 잃은 신자들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13)

III. 우리의 확신(13-21)

13-17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갖게 되는 두 가지 확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삶과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어느니라.”(14,15) 기도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임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절망감과 패배감과 무력감을 이기고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열어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십니다. 과거 우리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일치하도록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전능하신 분의 힘을 빌려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재조정되고 그의 뜻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내면이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였는데도 여전히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면 그는 아직도 참된 기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의 뜻을 맞게 구하고 그의 뜻을 이루고자 소원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기도 하여야 합니다.(16,17)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기도는 범죄한 형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죄를 범할 경우 그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간절히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를 위한 중보기도는 신자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중보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성령)을 부인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의로 부인하는 이단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범죄 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중보 기도가 없는 교회는 잠자는 교회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생명의 구원 역사의 원동력입니다.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큼니다.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소돔성에서 멸망당할 쾃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소돔성의 멸망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자는 중보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신자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지난 2월 24일 주일예배 후에 우리는 전체 소회를 열고 10명의 목자와 2명의 목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부서와 일꾼들을 새롭게 세우고 성령의 그릇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봄 학기 요한일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 역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신입생 양들을 건강검진 때부터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양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내주신 학생 양들을 창세기 주일예배에 초청하고 여름수양회를 통해 거듭나서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년부 40명대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임을 믿고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또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믿으므로 낙망하지 않고 즐기차게 구해야 하겠습니다.

18-20절에는 세 가지 단언적인 확신이 나옵니다. 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18) ②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19) ③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하신 것과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20) 사도 요한은 마지막 권면으로 “**자녀들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21) 말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았다면 자신을 지켜 우상으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21)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가 될 뿐만 아니라 범죄 한 형제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 기도하므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